



여수박람회 주제관 설계 당선작 '하나의 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여수박람회 주제관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작 '하나의 바다'(One Ocean). 오스트리아 건축가인 권테르 베베르 팀이 출품한 이 작품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 구획을 나눈 바다를 하나의 큰 객체로 구현하고 내부의 각 전시 공간을 흐르는 물처럼 열린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곡성군, 수능성적 상승 전국 1위

2005~2009학년도 성적 학교·지역별 분석

광주 2006년 이후 광역시중 1위 유지
장성·담양 등 광주·전남 9곳 50위권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5학년도~2009학년도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언어 외국어 수리)에서 성적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곡성군으로 나타났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치 수능 원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3개 영역 평균점수 합산에서 가장 크게 순위가 오른 지자체는 곡성군으로 2005학년도 223위에서 2009학년도 90위로 올랐다.

이 같은 곡성군의 수직 상승 견인차는 곡성고였다. 일반계고가 두 곳 뿐인 곡성군에서 곡성고가 2005년 '농산어촌 모델 자율학교'로 승인받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광주시가 2006학년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했다. 또한 광주는 광산구를 제외한 지역 내 4개 자치구가 모두 2006학년도 이후 줄곧 상위 25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232개) 상위 50위 내에 든 곳은 ▲4위-장성 ▲5위-광주 서구 ▲10위-광주 남

구 ▲16위-광주 북구 ▲17위-순천 ▲22위-광주 동구 ▲32위-담양 ▲41위-여수 ▲49위-화순 등 9곳이다.

이 지역 가운데 10위권에 진입한 장성에서는 장성고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으며, 광주 서구에서는 광덕·광주서석·광주대동고, 광주 남구는 문성·광주인성고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5년간 꾸준히 50위 안에 든 지역은 35곳이며, 그중 21곳은 상위 25위 안에 들어있다. 그 만큼 상위권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상위권 50위 지역은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도시가 아닌 곳은 경남 거창, 경북 영양, 화순·담양·장성 등 5곳 뿐이었다. 이 같이 50위권에 든 농촌지역 5곳 중 전남지역이 3곳이나 포함돼 있어 2009학년도 시도별 순위 15위로 하위권인 전남지역의 전체적인 성적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가 향방을 가른 지역도 있다. 2004년 목포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목포고는 2005학년도 52위에서 지난 해 389위로 떨어졌다.

같은 해 평준화를 시작한 순천고도 38

■ 전국 50위권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및 최상위 학교

| 순위 | 지역 | 2005 | 2006 | 2007 | 2009 |
|----|-------|------|------|-------|-------|
| 4 | 장성 | 장성 | 장성 | 장성 | 장성 |
| 5 | 광주 서구 | 광덕 | 광덕 | 서석 | 대동 |
| 10 | 광주 남구 | 문성 | 문성 | 문성 | 인성 |
| 16 | 광주 북구 | 고려 | 동신 | 살레시오 | 살레시오 |
| 17 | 순천 | 순천 | 순천 | 순천 | 순천 |
| 22 | 광주 동구 | 조대여 | 조대여 | 살레시오여 | 살레시오여 |
| 32 | 담양 | 창평 | 창평 | 창평 | 창평 |
| 41 | 여수 | 여수 | 여수여 | 여수 | 여수여 |
| 49 | 화순 | 능주 | 능주 | 능주 | 능주 |

<특목고 제외>

위에서 145위로 내려갔고, 순천 효천고 역시 100위에서 303위로 물러났다. 순천과 목포 보다 한 해 먼저 평준화를 시작한 여수고는 56위에서 219위, 여수여고는 58위에서 191위로 추락했다.

이들 학교의 성적은 하락한 반면 장성고의 성적은 크게 올랐다.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이 기숙형 자율학교인 장성고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장성고는 2005학년도 134위에서 지난 해 56위로 뛰었다.

특목고의 성적도 학교 형태에 따라 달랐다.

외국어고는 대부분 성적이 올랐지만 과학고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한국의국어대부속외고(용인외고)는 지난 해 수능에서 대원외고, 민족사관고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2009학년도에는 정심국제고(14위), 성남외고(20위), 김포외고(25위), 동두천외고(27위), 수

세계빛도시연합(LUCI) 광주총회 개막

5일 일정 돌입... 'Light Award' 핀란드 유바스키라 1위

광주를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계빛도시연합(LUCI) 연차 총회가 19일 개막했다.

세계적인 빛의 도시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LUCI 연차 총회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 총회에는 프랑스 리옹시 부시장인 장 미셸 다를랭 세계빛도시연합(LUCI)의장과 알랭 킬로 광주세계광엑스포 빛축제 예술총감독 등 빛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관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광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받는 LED 조명 개발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조명디자인에 대한 집중 토론과 함께 광주의 발전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미셸 다를랭 LUCI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역동성을 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하는 국가"라며 "빛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빛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세계적인 조명전문기업인 필립스 후원으로 'City·People·Light Award'가 열려 핀란드의 유바스키라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상은 그해 가장 훌륭한 경관도시에 수여하는 것으로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성도 항저우(杭州), 스위스의 라펜이 공동 2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내년에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영상관과 빛 분수를 개념으로 이 상에 도전할 계획이다.

연차총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기총회와 빛 시상식, 콘퍼런스, 분과별 토론회 등이 열리며 20일에는 'Focus on Korea Lights(한국의 빛)'를 주제로 세계적인 빛의 도시들과 함께 한국 조명 디자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LUCI는 프랑스 파리와 리옹, 영국의 글래스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 60여 개의 회원도시와 필립스 등 30여개의 세계적 조명기업들이 참여한 세계빛도시연합(LUCI)은 2001년 창립때 빛과 관련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급성장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빛도시연합(LUCI) 연차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최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광역경제권 사업 컨트롤 타워 출범

광역경제발전위 사무소 개소

호남광역경제권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컨트롤 타워인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1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호남권 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법적기구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추천인사 3명, 시·도지사 추천인사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는 향후 5년 단위로 추진되는 광역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간 자원배분, 재원 평가 관리 등 호남권 광역 정책의 조정 및 심의기능을 담당하

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의 광역계획에 명시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철단)부품소재 등 선도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사업과 차세대 부품소재사업, 바이오·생물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거점 대학 육성 등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 거점 산업 육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의 활성화 ▲광주~대구 철도 및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발전위는 광주·전남·북 등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상생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호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발전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이 여행사

234-3222

올레길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98,000

가족·연인과 함께 일본여행으로 가을을 즐겨요

카탈리아로 떠나는 류슈 온천여행

4일 299,000

하우스텐보스 즐기기

4일 399,000

대아고속해리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349,000